



국제리뷰

• 제3차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이선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차 한국 · 베트남 여성포럼

이 선 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3차 한국-베트남 여성포럼을 개최했다.

제3차 한국-베트남 여성포럼은 '정치활동 참여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베트남 가족여성연구원, 베트남 여성연맹¹⁾과 등과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한-베 여성포럼의 의의는 한국 여성 정책 위상 제고 및 베트남 여성정책 제도적 기반 강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2015년 10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여성연맹 대표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 및 여성 경제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베트남 여성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은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발표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1명씩 진행하였다.

제1세션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베트남 여성 경제 능력 향상'을 주제로 Nguyen Thi Hoai Linh 베트남 여성연맹 국제관계국장이 발표했으며,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1) 베트남 여성연맹 (Vietnam Women's Union, 1930~)은 중앙기관을 기점으로 성·직할시(province / municipality) 63개, 현(district level) 642개, 읍/면(commune level)에는 약 10,472개의 지방연맹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직구조를 갖춘 공산당 대중조직(mass organization)으로 전국적으로 약 1,500만명의 여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음.

■ 베트남 정부는 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베트남 여성연맹이 국가 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자금지원을 받으나 산하기관은 아니며, 독립적인 정부 출연기관임.

■ 주요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통, 교육, 동원을 통한 법과 정책의 실천, 여성의 역량 및 인식 강화
- 화목하고 지속 가능한 가족을 꾸려나가기 위한 여성 지원
-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빈곤감소 등을 위한 지원
- 양성평등 법률 및 정책 개발에의 제안 및 참여, 모니터링
- 강력한 베트남여성연맹 조직 구축
- 국제관계 및 협력 강화

‘베트남 여성 경제 능력 향상’에서는 베트남 여성의 노동 수요 및 실태에 대해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국제화 시대에 여성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의 잠재성을 개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각종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베트남 여성 연맹에서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출, 저축, 보험, 자문)을 통해 취·창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임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신용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 빈민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최신 설비를 갖춘 농장 운영 등을 실시해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여성 저축은행’을 통해 연맹과 생산자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에서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경력단절’ 부분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이 돌봄에 대한 주 책임자로의 역할, 불안정한 일자리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여성의 일·가정 양립, 경력의 유지 등을 위해 실제 정책현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도 소개했다. 이러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이며, 2015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의 선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세션은 ‘여성과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Nguyen Thi Tuyet Cam 베트남 여성연맹 정책법률국장이 ‘한-베 결혼 및 베트남 여성연맹의 지원’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베 결혼 및 베트남 여성연맹의 지원’에서는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주로 대만과 중국, 한국과의 빈도가 높은 현황이라고 제시했다. 국제결혼은 주로 중매에 의한 결혼으로 부부간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 쉬우며, 특히 상대국에 대한 법과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원인을 파악하였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혼인가정법’을 만들어 국제결혼에 대해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결혼과 관련해 베트남 여성연맹은 법적 부분의 보호에 대한 홍보와 양성평등과 관련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2세에 대한 지원 욕구가 커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연맹 내의 지원 강화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2세, 중도입국 자녀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김은주 소장이 발표한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및 과제’에서는 한국 여성의 과소 정치 대표성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모임과 연대,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그간의 경험을 설명했다. 특히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원의 진입이 확대되었으나 ‘비례대표 할당제’는 강제이행 규정이 없어 위반 시에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경여성대회 이후 남녀

동수를 표방한 국가들이 상당수이며 한국의 경우 2016년 총선을 기해 비례대표제 강화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신설 선거구의 경우 여성을 공천, 지역구의 30%를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사진 1] 2015년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기념세미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베트남 가족여성연구원 공동 워크숍

베트남 가족젠더연구소는 총 6개의 연구부서와 1개의 행정 및 저널출판담당 부서, 과학위원회 (Science Committee)를 갖춘 정부산하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소속 연구기관이다. 베트남 가족여성연구원과의 공동 워크숍은 2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에서 성주류화 제도화 과정’으로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한국에서의 성 주류화 제도화 과정, 성 주류화를 통한 변화를 소개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제도화의 배경, 추진근거, 소관부처 및 행정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성 주류화, 특히 모든 정책에서의 성인지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또 성별 통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정책사례로는

성별 요구를 반영한 도시공간의 설계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는 Tran Thi Minh Thi 베트남 가족여성연구원 부 디렉터가 ‘베트남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및 장애’를 주제로 발표했다. 베트남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현황을 통해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보여주었다. 정치적 대표성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므로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 할당제나 지역 특수성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인구나 노인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특히 결혼이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국외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로 이주해 나간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정책연구원과 이주여성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베트남의 가족젠더연구소와의 워크숍은 현재 베트남 내의 양성평등 관련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성주류화 전략 등 향후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사진 2] 베트남가족여성연구원과의 워크숍

이외에도 베트남 여성연맹 간담회, 베트남 여성아카데미 간담회, 베트남 여성연맹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여성 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여성 이슈 논의를 통해 향후 양국 교류 협력 필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

또 양국의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발전 전략 세미나’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여성기업인들의 교류확대 도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국 기업인이 직접 만나 무엇을 교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네트워크와 협력이 가능한 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베트남 여성 발명의 날 개회식, 베트남 여성연맹 창립식은 베트남 여성연맹 창립 85주년이라는 뜻 깊은 자리에 초정을 받아 참석한 행사로 기관간의 우호, 협력을 돈독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사진 3] 베트남 여성연맹 간담회



[사진 4] 주베트남 대사관 방문 및 대담



[사진 5] 베트남 여성 발명의 날 사전감담회 및 개회식



[사진 6] 베트남 여성연맹 창립 85주년 기념식

마지막으로 ‘2016년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방향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2016년 한국-베트남 여성 포럼에서의 주요 논의방향을 논의하였다.

2015년 포럼에서는 양국 모두 일과 가정을 같이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또 정치,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 역량 강화 방안, 실질적 양성평등 확장 등의 중요성을 논의한 만큼 2016년 포럼에서는 15년에 논의되었던 주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 논의, 국제 통합화 과정의 경험, 각종 여성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경험 공유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합의하였다.